

#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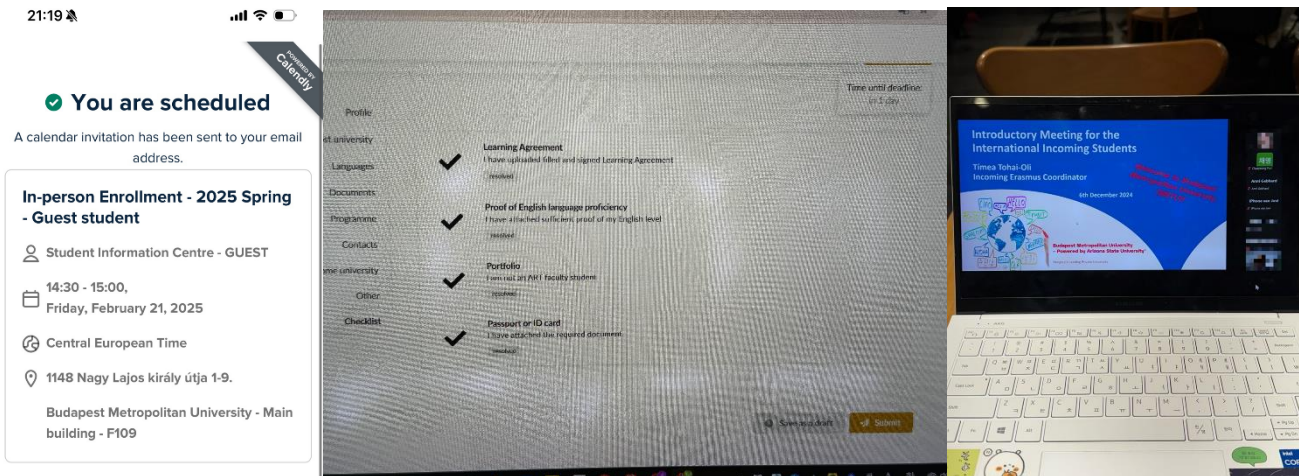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파견대학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파견기간	2025년 1학기	파견국가	헝가리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이가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현지대학에 지원할 때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 서류 목록과 각 서류 준비 과정
- 현지대학의 신청 절차 및 전체적인 진행 일정
- 신청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



## 1. Application- Course List, Learning Agreement(인적사항, 내 전공, 어학 성적, 들을 수업, 각 학교의 서명)

가장 먼저 파견교로부터 코스리스트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관련 메일이 옵니다. 첨부해주신 서류의 칸을 채워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름, 생일 등 인적사항과 파견교에서 어떤 전공을 들을지, 한국학교에서는 어떤 전공인지, 여여레벨(토익 성적서 제출하면서, CEFR기준 레벨도 작성하기 때문에 저는 B2로 체크했습니다), 파견교에서 들을 수업 등을 작성합니다. 파견교에서 들을 수업은 추후에 변경할 수 있어서 일단 여기에는 가장 관심이 가는 수업, 전공 관련 수업으로 채웠습니다. 이때 파견교로 서류를 보내기 전, 제 담당 교수님, 학과장님, 교환 파견 담당자 선생님의 서명이 필요해서 마감 기한보다 빠르게 작성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 2. Dormitory Application

이후 메일로 기숙사 신청과 관련해 구글폼을 받았습니다. 상세 신청 이전에 미리 기숙사 자리 확보를 위해 수요조사

만 받는 거라고 하셨는데, 기숙사 사용 유무와 주거 형태(2인 1실, 1인 1실 등)를 묻는 품이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했음에도 기숙사 이용이 어렵다고 답신을 받아서 결국 기숙사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3. Enrollment information, Letter of Acceptance

수강신청관련 정보가 적힌 파일(Enrollment information)과 함께 입학 허가서를 받습니다. 이때 입학 허가서에는 제 이름과 서명란 등이 공란으로 오기 때문에 제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작성해서 답신을 보내면 사인을 해서 돌려주시는 시스템으로 입학 허가서 발급이 진행됐습니다. 헝가리는 비자를 안 받고 현지에서 거주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받은 입학허가서를 출국할 때 프린트해가서 입국심사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 4.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 관련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떤 건강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는 따로 언급이 없어서 저는 한화손해보험에 있는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증서는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영어본을 파견교에 보냈습니다.

### 5. Online OT

OT는 온라인으로 한국시간 오후 7시쯤 진행한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의 기본 정보(캠퍼스 분류 및 위치, Student office 위치와 운영시간, 질문 등)를 알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면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 6. Course Registration

한국시간 오후 7시쯤 시작했습니다. neptun이라는 홈페이지(우리 학교로 치면 스마트리드)에서 신청했어요. 수강 신청 후에는 오피스 방문해서 오프라인 등록할 시간도 예약해야 하는데, 저는 되도록 늦게 신청하고 싶어서 여유로웠습니다. 이를 수록 빨리 예약이 빨리 잡니다.

### 7. Offline Registration - 여권, 건강 보험, 학생증 만들 수 있음

이건 현지 도착 후 학교 방문해서 하는 등록인데요. 수강신청 기간에 예약했던 시간에 맞춰 건강보험과 여권 들고 Student office에 방문하면 됩니다. 재학생 등록 끝난 후에는 학생증을 신청해주는데 수령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헝가리 학생증 번호가 나와야 할인된 헝가리 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착하자마자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 출국 전 준비한 내용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비자 발급 과정, 소요 시간, 유의할 점
- 항공권 예약, 현지 도착 후 숙소까지의 이동 방법
-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교통카드, 통신 등 현지 생활 준비물

집 (플랫)	
1차 보증금	280유로 (420,935원)
2차 보증금	280유로 (421,304원)
2월 월세 + 생필품 대여 보증금	333.3유로 (501,284원) (280+50+3.3%) (*50유로 = 75,200원)
3월 월세 + 전월 공과금	282.8유로 (월세) 34.34유로 (공과금) (493,320원)
4월 월세 + 전월 공과금	282.8유로 (월세) 38.38유로 (공과금) (513,888원)
5월 월세 + 전월 공과금	282.8유로 (월세) 33.33유로 (공과금) (504,227원)
6월 월세 + 전월 공과금	282.8유로 34.34유로 (공과금) (506,472원)

교환학생	
비행기 (인천→부다)	587,766원 (수하물 추가)
비행기 (부다→인천)	824,612원 (터키항공)
국제학생증	19,000원
유학생 보험	195,475원
	1,626,853원

- 교환학생
- 사용할 카드
  - 신한은행 트래블 월렛
    - 전월실적 30만원 라운지 이용 가능(연2회)
  - 토스 외화 통장
    - 환전 수수료 무료
    - 월세 결제, 유럽 여행용
    - 유료 쓸 때 미리 환전해놓기
    - 포인트 환전 불가
  - 트래블월렛
    - 포인트 환전 가능
    - 환전 수수료 없는 대신, 결제 수수료가 있는 듯
  - 트래블고, 트래블로그
    - 하나은행(하나머니에서 충전)
    - 포인트 환전 가능(저렴)
    - 헝가리 내 주사용카드
    - 비자(트래블고), 마스터(트래블로그)
    - 결제 수수료 없음
    - 한화 재환전시 1% 수수료

### - 거주증 신청 과정

부다페스트에 ELTE라는 대학교에 파견가는 한국인 교환학생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올려주신 서류 작성법 보고 작성했습니다. 네이버에 '헝가리 교환학생 거주증 신청'이라고 검색하면 여러개 뜹니다! 서류는 여권 사본, 통장 사본(약 300만원 이상 예금되어 있는 통장, 유로로 적혀있어야 함), 건강보험, 파견교 입학허가서, 한국학교 영문 재학 증명서 등을 업로드했습니다.

### - 왕복 비행기

저는 비행기를 왕복으로 안 끊고 편도로 따로 구매했거든요. 헝가리에 갈 때는 LOT폴란드 항공 (당시 직항이 있었음, 현재 없는 걸로 압니다)으로 왔고, 체크인할 때 뒷좌석으로 하시면 눕코노미로 할 수 있습니다. ISIC에서 학생 항공권으로 끊으면 23KG 수하물 무료 추가라길래 비교해봤는데 그냥 일반 항공권으로 끊은 후에 개인적으로 수하물 추가비용 내는 게 더 저렴했어요. 수하물 추가해서 약 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귀국행 비행기는 터키항공 이용했고 터키에서 4시간 경유하는 항공권이었습니다. 터키항공은 홈페이지에서 학생 인증하면 무료로 수하물 추가가 가능하고, 그렇게 저는 약 80만원 정도에 귀국행 비행기 예매했습니다. 제가 7월 중순 즈음으로 예매해서 다른 날보다 가격이 비쌌는데 6월 말의 경우 60~70만원으로도 구매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해요. (+ 유럽에서는 유럽 거주 학생이면 할인 되는 게 많아서 저는 ISIC 국제학생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 현지에서 숙소 이동

23KG 캐리어 두 개를 끌어야 해서 숙소까지는 볼트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볼트 어플에 카드 등록해 놓고 가야 현지에서 사용이 더 편리하고요. 숙소까지는 30분 정도 걸렸는데 한화 약 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 - 하나은행 트래블 카드

와서 레볼루트 등 현지 통장 많이 개설하시는데 거주증이 있어야 개설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한국에서 가져간 트래블 카드로 환전해서 생활했습니다. (거주증은 발급되는데 2달, 길게는 3달까지도 걸립니다) 헝가리는 포인트라는 자국 화폐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해외 카드로는 환전이 안 되거나, 수수료가 많이 나와요. 하나은행에서 발급하는 트래블 카드(트래블고, 트래블로그)가 환전 수수료 없고 헝가리 포인트 및 체코 코루나 등 다양한 화폐 환전이 가능하니 이거 꼭 발급 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카드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서 결제 가능한 카드 3개 이상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총 5개 (이 중 포인트 결제 가능 카드 3개) 들고왔는데 2개는 잃어버렸습니다.... (도난 당한 거 아니고 그냥 혼자 잃어버렸어요)

### 3. 수업 정보 (분량: 1장)

-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수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수강한 과목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
- 수업 분위기 (예: 수업별 학생 수, 발표·과제 중심 등)
- 수업 난이도, 어학 능력 요구 수준



#### - Online Media Studies

미디어 관련 수업을 듣고 싶어서 수강한 수업입니다. 인터넷 2.0, VR과 AR, 인터넷의 등장, SNS 등 커뮤니케이션개론(한림대학교 미디어 전공 수업)에서 배울 만한 것들을 중간고사 이전에 배우고,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미디어 민주주의에 관련해 심화학습합니다. Media Democracy가 포퓰리즘, 정치 참여, 정치 상식 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배웁니다.

교수님께서 토론이나 활동지 등의 학생참여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모든 수업마다 학생들과 토론하거나 해당 개념이 어떤의미일지 서로 이야기해보거나, 각자의 나라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학생수는 전체 20명 안팎이었던 것 같고, 과제는 총 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과제가 30분~1시간 정도면 할 수 있는 리서치나 의견 정리 등의 과제(1장~2장 분량)라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고, 수업 시간에 영어로 토론에 참여해야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 - Multimedia Appliction 2

이것도 미디어 전공 수업입니다. 기말과제인 John Anderson A,B 영상을 제출하는 게 최종과제인데 이전에는 이것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카메라와 편집 기법 등을 배웁니다. 180도 규칙, 스토리보드 작성법, 카메라 작동법 (소니 작은 캠코더, 트라이포드), 카메라 앵글(클로즈업, 미디엄샷, 풀샷 등), 클레쇼프 효과, 단편 소설 작성 등을 한 주씩 나눠서 학습 및 실습을 진행합니다. 사실 배우는 내용 자체는 한림대학교 미디어 전공 수업인 영상이론, 방송 미디어론, 커뮤니케이션 개론, 미디어스토리텔링 기초 등에서 배우는 내용,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라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매주 실습이 있고 그 다음주에 실습 내용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용을 배우기에 급급해서, 실습은 아예 못해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내용은 쉬워도 직접 실습해볼 수 있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수업입니다.

학생은 10명 정도이고, 수업시간이 3시간이지만, 시험이 없고 수업을 일찍 끝내주십니다. 중간고사 시즌 이후부터는 실습과제 제출하면 수업시간에 다같이 평가 및 과제 점수 주시고 수업이 끝납니다.

#### - Economic Communication

경영 전공 수업으로, 직장 내에서 혹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소통법을 사용하면 좋은지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경영 수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양 수업처럼 느껴졌고, 배우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press release 작성하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유형 구분 및 각 유형별 대화 접근법, 색깔이 주는 이미지 분석, 비즈니스 상황 역할 놀이 등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대부분 학생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수업 형태기 때문에 매번 앞으로 나가서 발표하거나, 서로 이야기할 일이 많았습니다.

수업 참여도가 활발하고, Press Release와 Briefing 과제만 제출하면 시험 없이 성적을 주셨고, 결석이 많은 학생은 따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ress release는 메타 직원들의 바우처 불법 사용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을 해고했던 사건을 저희만의 방식대로 언론발표문을 작성하는 거였고, Briefing은 최근 이슈가 된 사건 하나를 브리핑하고 그와 관련된 보임을 설계해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둘다 수업시간에 2~3명씩 짝을 이뤄 할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따로 시간 들이지 않았고, 몇 번 결석했는데도 수업시간에 활발하게만 참여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 - New Media Theories

이건 대학원 수업인데 학부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진행하는 줌 수업이어서 신청했는데, 수업의 난이도만 치면 한국에서 전공 수업 듣는 정도였어서 그걸 영어로 수강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뿐, 난이도 자체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줌수업인데 출석이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수업에 집중하거나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답변이나 의견을 더 듣고 싶어하셨고, 소그룹 만들어서 활동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줌이라서 원활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그래도 교재나 ppt 참고해서 혼자 공부하고, 모르거나 이해가 더 필요한 내용은 ai에 물어보면서 학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토론, 시험, 총 3개로 나눠 평가하고 과제는 미디어문화와 관련된 레포트 8장~10장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레포트 중 가장 퀄리티가 높은 2개를 뽑아 토론을 진행했어요. 이때 토론자 두 명과 진행자 등도 선정작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공개됩니다. 본인이 토론자와 진행자, 토론 선정작으로도 뽑히지 않았다면 레포트를 읽고 질문 3개를 남겨 소량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kahoot이라는 퀴즈 풀기 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는데, 수업시간에 테스트 삼아 다같이 카훗 시험을 본 적 있는데, 이때 출제됐던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도 출제되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Japanese Business and Culture

일본의 문화, 경영 방법, 역사, 일본어 등에 대해 알지만 다양하게 배우는 수업입니다. 아시안인 제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쉽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식 수업이고 저희끼리 토론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도 시험은 없고, 발표 후 발표 내용을 그대로 레포트로 작성해 제출하면 통과되는 거였는데, 발표 내용은 일본 문화와 관련된 거라면 다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결석 3번 이하) 레포트도 발표로 진행한 ppt 내용을 줄글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분량은 10~15분이었고, 레포트는 따로 분량이 없었습니다.

###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 학교 안팎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캠퍼스 시설 및 서비스
- 필드트립,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한 활동
- 학교 주변 맛집, 쇼핑 장소, 관광지 등 유용한 지역 정보



### 1. 기숙사, 플랫

원래는 기숙사를 쓸 생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파견 서류 작성 기간에 파견교로부터 기숙사 신청 구글폼이 와서 그 링크로 신청은 완료했으나, 이후 기숙사가 다 차서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는 학교 자체에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학사처럼 유럽 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기숙사를 다른 학교 학생들과 공유해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견교에서 해당 기숙사에 미리 일정 인원을 신청해놓지 않으면 자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견했던 학기에는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가 기숙사 인원 확보를 못해서 파견교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사용이 어려우니 개별로 지낼 곳을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플랫(세어 하우스)을 물색했고, 저는 'United Erasmus Housing'이라는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집을 구했습니다. 보통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집을 많이 구하는데, 이 방법으로 플랫을 구할 시에는 현지에 도착해 구해야 해서 (페이스북을 통한 플랫 매매는 저렴한 대신, 사기의 위험이 높습니다) 저는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부동산 사이트에서 미리 계약했습니다. 플랫은 girls only 라고 적혀져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혼성 플랫인데요. 다행히 저희 집은 제가 첫 계약자였고, 학교 교환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제 방을 홍보했더니 여자애들(체코1, 대만2)만 들어와주었습니다.. (여기에 온 교환학생이 약 90명 정도 되는데 모두 다 플랫을 구하느라 채팅이 활발하던 시즌이라 저도 플랫 메이트 구한다고 저희 집 링크와 함께 홍보글을 올렸어요.)

한 학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학교 자체도 부다페스트 중심지에서 조금 외곽에 있는 편인데, 기숙사는 그것보다 더 외곽에 있어서 중심지에 플랫을 구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Astoria와 Deak Ferenc tere역이 번화가여서 여기에 플랫을 구한 친구들도 많았고요. 저는 keleti와 Bajza utza역 사이에 살았는데 큰 마트가 근처에 두 개(SPAR, LIDL)가 있고 DM(한국의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과 큰 공원도 가까이에 있어 생활하기 좋은 동네였어요.

### 2. 캠퍼스

캠퍼스는 저희 학교에 비하면 많이 작은 편입니다. 아트 캠퍼스는 부다 사이드에, 그 외의 전공은 페스트 사이드에 위치해 있는데 미디어와 경영 수업을 들었던 저는 페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캠퍼스로만 통학했고요. 제가 다니던 캠퍼스는 전체 사이즈를 감안했을때 한림대학교 대학 본부+인문대 사이즈보다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나름 학식당도 있긴한데, 여러 음식 중에 원하는 것만 담아 달라고 요청하시면 마지막에 담긴 메뉴 보고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12:50-13:20이 점심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학식 먹는 친구들도 있고 생각보다 집에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싸오는 친구들도 많아서 한두번 먹어보시고 정하면 될 것 같아요.

### 3. 쇼핑 장소

- 학교 근처

학교 근처에는 sugar와 arkad, IKEA가 있는데요. 점심 공강 길 때 저는 이케아에서 주로 점심 먹었습니다. 슈가와 아카드는 둘다 복합 쇼핑몰인데, 슈가는 연식이 좀 됐고 크지 않아서 아카드 자주 방문했습니다. 아카드에는 h&m, zara, bershka, c&a, lush, media market(미디어 관련 용품만 파는 상점), miniso, flying tiger 등 웬만한 스파 브랜드 생활용품점이 다 있어서 학교 갔을 때 쇼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 패션스트리트

Deak Ferenc tere 쪽이 관광 중심부인데, 여기는 패션 스트리트라고 엄청 큰 ZARA, H&M, BERSHKA, COS 등 상점이 있어서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 - 카페

카페 프레이, 마달 카페, vaj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게들이 헝가리 내에서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레이는 저렴하고, 스페셜티 커피로 유명하고 마달 카페는 카공하시는 분들이 가기 좋을 것 같아요. vaj는 베이커리 겸 카페인데 코로나 시기에 생겨났는데도 빵이 맛있어서 이후 프랜차이즈화 됐다고 들었어요.

#### - 도서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Budapest Metropolitan Library(저희 학교 도서관은 아니고 시립입니다), ELTE 도서관이 있는데요. 메트로폴리탄은 4층이 공전 도서관이라고 불려서, 중세시대 유럽에 온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고(대신, 중간중간 관광객 분들이 들어오셔서 사진 찍거나 하시긴 합니다) ELTE 도서관은 아스토리아 역 쪽에 있어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신 ELTE 도서관은 엘떼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해서 자리가 넉넉치 않아요.

### 4. 학교 생활 : Erasmus Life in Budapest

다른 학교는 버디나 학교 자체의 동아리 등 자치활동이 많던데 저희 학교는 규모가 작아 거의 없었고 대신 Erasmus Life in Budapest라는 업체에서 교환학생 관련 프로그램이나 여행, 파티 등을 많이 주관하고 있어요. 줄여서 ELB라고 부르고, 인스타그램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 먼데이(월요일 클럽 무료 입장 + 맥주 할인), 와인 테이스팅 파티, 보트 파티, 필드 트립, 보드게임 나잇 등 거의 매일 행사가 잡혀있고 ELB 전용 학생증 구매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초반에 여기서 하는 행사 나가면 친구들 사귀기 좋고, 저희 학교 애들은 좀 드물긴 한데 다른 학교 애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먼데이가 진입장벽이 좀 느껴지면 일요일에 하는 보드게임 나잇이나 부다성 투어 같은 걸로 시작해서 친구 사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랐는데 부다페스트가 방문화로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파티를 즐기고 싶어서 부다페스트로 교환학생을 왔다고 하는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클럽이나 파티가 생각보다 많아서 관심 많으시면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리슨은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클럽이고, 심플라 펌이라고 예전에 공장이었던 곳을 펌으로 개조해 만든 클럽도 있고, 케이팝 클럽 등 다양합니다.

모하치, 발라톤 호수 등 헝가리 내에서도 가기 좀 힘든 도시들도 있어요. 그런 곳은 ELB에서 필드 트립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그때 이용해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헝가리 내 말고도 프라하, 슬로베니아 등 가까운 나라들도 필드트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헝가리 내의 도시에 가는 필드트립으로 몇 번 다녀온 적 있어요!

###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 생활비와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기숙사 종류와 월별/학기별 비용
- 식비, 교통비, 여행비, 기타 개인 지출 등

#### - 월세

기숙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못 구해서 플랫폼에서 살았고, 2인 1실 (복층 구조) 한 명당 280유로에 공과금 따로 지불했습니다. 유료가 많이 올랐을 때도 있어서 월세+공과금으로 49만원~55만원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계약금으로 두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야해요. 나중에 계약 끝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 - 부다페스트 생활비

한 달에 두세번 정도는 꼭 여행을 가서 실질적으로 부다페스트에서 지내는 건 3주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갈 생각이어서 주로 마트에서 사와서 집에서 밥 해먹었고 이렇게 했을 때 한달 부다페스트 생활비로만 5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교통은 여기서 학교 학생증 발급받으신 후에 학생용 페스트 사이드 교통권 구매하시면 4000원이면 한달 동안 부다페스트 내에 있는 모든 버스, 지하철, 트램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서 유심을 많이 사던데, 저는 거주증(비자)을 와서 발급받아야 해서 거주증이 없으면 유심을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심 한 달짜리 매달 구독해서 사용했습니다 (약 2~3만원)

결론적으로 부다페스트에서 월세 포함 생활비로 한달에 한화 약 110~115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 - 여행비

여행은 11국 19개 도시 다녀왔고 여행비로만 총 7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다녀온 나라는 헝가리(부다페스트, 모하치, 센텐드레),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퀵른, 뒤셀도르프), 포르투갈(리스본, 포르투), 프랑스(니스, 마르세유, 파리), 벨기에, 그리스(아테네, 산토리니),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두브로브니크), 영국, 스페인(바르셀로나)입니다. 괄호 안에 도시가 안 적힌 나라들은 수도만 다녀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 갈 때 80만원 정도 소비했는데, 물가가 비싼 나라는 집에서 해먹거나 마트에서 사먹고, 물가가 싸면 레스토랑을 많이 가게 돼서 어느 나라든 결국 쓰는 돈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 6. 자기평가 (분량: 1~2장)

- 교환학생 경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얻은 점, 성장한 부분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왜 필요했는지
-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 방법

25년 1학기를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이 생활은 해외 체험을 넘어,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특히 소문이나 눈치 등을 신경 써야 하는 게 슬슬 염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의 행실을 전해 듣고 그걸 판단해야 하는 상황도,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지치고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방식이 제게까지 옮겨오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취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홀로 타국에서 살아가는 게 큰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쪽촌에서 지냈고, 늘 곁에 존재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굳이 도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자립심이 적고 걱정, 불안 등이 많은 편이라 혼자 모르는 곳에 가서 생활하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익숙하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무섭더라도 도전하고 나아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을 떠나본 결과, 배운 것도, 성장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고, 새로운 학업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립심이 눈에 띄게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대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발하게 지냈는데 저희 학교 특성상 동아리나 학교생활의 비중이 크지 않아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이 클럽이나 여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고민이나 생각을 나눌 사람도, 그를 해소할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매우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점이 낯설고 스트레스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그런 것들로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압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조금함을 내려놓으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어울릴 수 있었고, 혼자 보내는 시간에는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만의 취미를 개발해나가는 외국인 친구들과, 주변인을 신경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외국인 친구들을 보며, 한국에서의 제 삶과 태도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몰랐던 저와는 달리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주류문화를 '이상한 것',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주류문화는 특색이 없다며 자신만의 강점과 특색을 만들어오라고 강요하는 사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각자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사회라고 느껴, 한결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워낙 게으르고 귀찮음이 많아 한국에서 다른 지역으로도 여행을 가는 걸 쉽게 마음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한 학기를 어떻게든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다고 생각해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억지로라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 같은 유럽에도 얼마나 많은 문화권과 특성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었고, 낯선환경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용기를 갖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해보지 않았을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좋은 경험도, 부정적 경험도 그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교훈과 느낀 점이 늘 있었고, 좋으면 좋은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된 한 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건축물과 유럽사, 한국과의 다른 점을 고려해보며 제가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것이나 관심사를 물으면, 제 전공밖에 대답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좋아하는 게 뭔지를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외적인 성과나 사회적 활동에 치우치기 보다, 내면의 안정과 성장이 이뤄진 한 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지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저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 복수전공, 졸업요건, 어학능력, 재정적 부담 등